

한전 내부 설립 부정적 기류 입지 갈등 말고 역량 모아야

광주시장·전남지사 당선인
상생이슈 이것부터 해결

〈1〉 한전공대

정부·한전 추진 의지 재확인
설립·발전 전략 협의 나서야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광주·전남의 리더십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선 7기 출범을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시급한 현안의 신속한 추진 및 해결을 위해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자,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자 등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에는 시급한 광주·전남 지역 현안을 소개한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정착한 한국전력이 에너지 관련 세계적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한전공대' 설립이 주춤거리고 있다. 마스터플랜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급물살을 탔으나 한전 신입 사장 선출, 한전 3분기 연속 적자 등으로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설립에 5000억원 이상 자금의 단기 투입은 물론 이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데다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신규 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내부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입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접고 한전이 지역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인 '한전공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이자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내놓은 광주·전남 상생공약이다. 지역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4차 산업·에너지 신산업 등 지역미래산업을 끌어올릴 인재를 육성해 산업현장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전은 지난 3월 한전공대(가칭) 설립 마스터 플랜을 만들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A.T.Kearney-삼우건축을 선정했다.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대학설립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역 내에서 한전공대 입지를 둘러싼 논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지난 4월 김종갑 사장이 취임하면서 한전공대와 관련된 한전 내부의 추진 의지가 급속히 식어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한전이 지난해 4분기 1294억원, 1분기 1276억원에 이어 2분기 약 33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한 것도 걸림돌이다. 부채 역시 지난 1분기 연결기준 111조8265억원에 이르는 등 적자와 부채에 허덕이는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된 것이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시점까지 '비상 경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입지 논쟁에서 벗어나 한전공대가 당초 약속대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한전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설립 방안 및 그에 따른 발전 전략 등을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 문제를 한전 수의구조와 결부시켜서는 안 되며, 계획한 것 이상의 규모와 첨단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역 내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한전공대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라 지역 미래산업의 핵심기관이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월드컵의 날... "스웨덴을 꺾어라"



18일 오후 9시 한국 축구대표팀이 스웨덴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첫 경기를 치른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로모노소프 스파르타크 훈련장에서 담금질을 하던 한국 대표팀은 16일 밤 결전지 니즈니노브고로드로 이동해 마지막 준비를 끝냈다. /연합뉴스

스웨덴 vs 대한민국 (오후 9시)

18일 밤 대한민국이 붉은 열기로 달아오른다.

〈관련기사 2·20면〉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18일 오후 9시(이하 한국 시간) 니즈니노브고로드 스타디움에서 스웨덴과 조별리그 F조 첫 경기를 치른다.

'태극전사'들은 스웨덴전을 통해 1954년 스위스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열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다. 또 이번 러시아 월드컵을 통해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위업을 이룬 한국은 2010년 남

한국, 오늘 오후 9시 월드컵 스웨덴과 조별리그 첫 경기
광주월드컵경기장 오후 7시부터 응원전... 문화예술 공연도

아공 대회에 이어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을 노리게 된다.

스웨덴과의 본선 첫전이 신태용 감독이 언급한 '통쾌한 반란'을 위한 시작점이다. F조에 속한 한국은 '우승 후보'인 독일,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 북유럽의 '북방' 스웨덴과 16강 진출을 다툰다.

난적들과 한 조에 묶이면서 쉽지 않은 16강 도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대회 2연패에 도전하는 '전차 군단' 독일(27일 오후 11시)과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만큼 스웨덴전 돌풍을 시작으로 멕시코전(24일 0시)에서 16강으로 가는 길을 묻겠다는 각오다.

16일 밤 결전지인 니즈니노브고로드에 입성한 한국 대표팀은 17일 공식훈련과 기자회견을 갖고 스웨덴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끝냈다.

'총성 없는 전쟁'에 뛰어드는 '태극전사'들을 위해 '붉은 악마'가 지원군으로 나선다.

2002 월드컵 당시 붉은 물결로 가득 찼던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은 물론 광주·부산·대구·대전·제주 등지에서 거리 응원전이 펼쳐진다. 광화문·서울 광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매 대회 빼놓지 않고 붉은 악마들이 집결하는 '거리응원의 성지'다. 월드컵 거리 응원의 또 다른 '핫

플레이스'인 영동대로에서도 응원전이 전개된다.

2002 한일월드컵 4강 신화가 탄생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도 시민참여 응원전이 열린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입장할 수 있으며 댄스팀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도 진행된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 승리를 이끈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이탈리아와의 8강전 승리가 기록된 대전월드컵경기장도 응원전 무대가 된다.

이 외에 대구·삼성 라이온즈파크,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수원 월드컵경기장, 세종시청 잔디광장, 상암마당 춘천 야외공연장, 용인시민 체육공원 주 경기장, 제주 월드컵 경기장 등 전국 곳곳에 '대한민국'을 외치는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임 경찰청장에 영암출신 민갑룡 내정

검·경 총수 호남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임에 영암 출신인 민갑룡(53·경찰대 4기)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이철성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현 정부 들어 유임됐기 때문에 민 내정자는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교체 지명한 경찰

총수다.

〈관련기사 7면〉 민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이부영 청장이 17년 만에 호남출신 경찰 총수가 된다. 현재 검찰인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호남출신이라는 점에서 검·경 총수가 나란히 호남출신이라는 흔하지 않은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모두 호남 출신이었던 적은 김대중



민갑룡 내정자

다. 광주지방경찰청 1부장을 지내기도 한 민 내정자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총

경), 기획조정관(차안감) 등을 거친 경찰조직 내 최고의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민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획조정관에 이어 경찰청 차장(차안장)에 임명된 이후 경찰개혁 과제 추진을 총지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차기 해양경찰청장에 경남 창원 출신인 조현배(58)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전남 무안 출신의 박경민 현 청장은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옷을 벗게 됐다. /임동욱 기자 tuim@/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음식점이 이중결제 해결은 이용자가
분통 터지는 카드 결제 ▶6면
디토 앙상블 공연 -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설화수 설린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린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Sulwhasoo
BLOOMSTAY VITALIZING CREAM
설린크림

Sulwhasoo